

1980년대 Jean-Paul Gaultier의 작품연구

박 순 천

호남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1970년대 첫 데뷔이후 끊임없이 패션계를 뒤흔들어왔던 디자이너 장-폴 고티에도 이제 중년의 거장이 되었다. 그 동안 패션계를 종횡무진 휘저었던 그는 패션계의 악동, 패션계의 반항아로 일컬어지며 스스로를 패션계의 이단아로 칭하고 있다. 때 시즌마다 발표되어지는 고티에의 작품들은 그 대부분이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매우 쇼킹하고 전위적인 디자인들이다. 이러한 그의 독특한 작품들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그의 패션쇼를 기다려지게 만드는 일종의 마력을 지니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의 다양한 고티에의 작품활동 중에서 이른바 “터부를 깨고 도발을 받아들였다는 한마디로 통쾌한 역설”이 있는 80년대의 작품세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세기 패션의 선두주자인 고티에는 1952년 아르퀴엘이라는 파리 교외에서 태어났다. 조그만 양재점을 경영하는 어머니와 너그러운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자란 고티에는 소녀다운 취향을 좋아했다. 10대 시절부터 디자인이나 헤어 메이크업을 하며 시간을 보낸 그는 17세 무렵, 그가 그린 스케치가 피에르 가르탱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1970년부터 1년동안 피에르 가르탱의 꾸뛰르 하우스의 디자이너 어시스턴트로 근무하면서 모드의 세계에 입문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1976년 그가 24세되던 해에 프리랜서를 선언한 고티에는 이듬해 특유의 독자적인 작품을 만들어 처음으로 컬렉션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때의 컬렉션 관객들은 짚으로 만든 식탁용 접시받침에서 영감을 얻은 고티에의 드레스들을 보고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일 가치도 없는 디자이너라고 생각했다.

이후 그가 패션계에 인정을 받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 프랑스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에 실패한 그는 마침내 일본 가시야마 그룹에서 후원자를 발견하고 그의 후원에 힘입어 1979~1980년 가을, 겨울 컬렉션에서 제임스 본드라는 첫 테마 컬렉션을 갖게 된다. 이를 계기로 그는 기보와 이퀘이토라는 이태리 회사들로부터도 후원을 받는 등 성공적인 디자이너로 탈바꿈하게 된다.

1988년 주니어 고티에(Junior Gaultier) 라인을 런칭하고 1992년 고티에 진(Gaultier Jean)을, 1993년 장 폴 고티에 향수 사업도 벌인다. 1994년에는 기존 고티에 진을 스포츠 캐주얼에 접목시킨 JPG로 바꾼다. 1991년~1995년까지 프랑스 패션지인 슈르날 드 텍스틸(Journal de Textile)에서 1위의 인기를 차지한다. 그리고 1997년 그의 첫 오뚜꾸뛰르 컬렉션을 발표하였다.

브랜드로서 장 폴 고티에는 총 4개 라인으로 이뤄져 있다. 그의 작품세계가 가장 잘 표현된

퍼스트 라인(first line)이 대표적이며 스포츠 캐주얼 라인인 JPG 그리고 고티에 진과 액세서리 라인이 있다.

퍼스트 라인은 Jean-Paul Gaultier 명칭으로 명명된다. 여기에는 디자이너 컬렉션과 클래식 라인으로 구분된다. 가장 고가이며 고티에의 작품세계를 잘 엿볼 수 있는 라인이기도 하다. 특히 클래식 라인은 동양인에게 적합하며 이태리 및 일본 홍콩 등지에서 생산하고 있다.

JPG라는 약어로 명칭을 붙이게된 세컨 라인(second line)은 스포츠 캐주얼 컨셉으로 퍼스트 라인에서 창조된 개성과 스포츠 캐주얼의 기능이 만나 독특한 캐주얼 웨어를 선보인다. 핑키하고 아방가르드한 컨셉이 그대로 세컨 라인에도 반영됨에 따라 독특한 스타일을 찾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서드 라인(third line)은 Gaultier Jeans 명칭을 붙인다. 진이라는 젊고 활력 넘치는 소재를 가지고 나이를 초월한 고감도의 감각을 표현하고 있다.

액세서리 라인(Accessory line)은 생산이 따르지 못할 정도로 잘 팔리고 있다. 액세서리에서도 고티에 특유의 패션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향수의 패키지가 대표적이다. 향수 걸 상자는 보통 통조림 캔과 같은 양철 캔이며 그 속을 열면 금속의 브래지어로 가슴이 풍만하게 장식된 유리 가슴상 병이 들어 있다. 이외에 핸드백, 넥타이, 스카프, 안경, 신발, 시계, 란제리, 보석류, 벨트, 벨빵 등 고감도의 고티에 감성이 담긴 소품들은 이제 세계인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컬렉션 라인을 보유하여 각 라인마다 2백여 스타일 이상으로 상품을 구성한다. 같은 스타일을 전 세계적으로 1천 피스 이상은 절대 생산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해 디자인의 희소 가치를 최대한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에 완벽한 생산체제 시스템 구축으로 세계 최고가 브랜드로는 유일무이하게 리퍼트가 가능하며 바이어는 주문 후 20일 이내에 고티에 라인을 만날 수 있다.

"여성들이 의상을 선택하고 입는 행위는 하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시대상황을 반영하면서도 옛스러운 스타일과 혼합한 실루엣을 하나의 디자인 속에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담으려 하는 고티에의 의지가 숨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80년대 작품의 컨셉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82년에는 가터벨트를 드러낸 장녀스타일, 85년에는 반은 스커트 반은 팬츠인 앤드로지니아스룩, 86년부터 87년에는 중후한 러시아룩, 89년에는 유두 피어스로 익살스런 분위기를 살린 속옷 스타일의 핑크룩 등을 선보였다.

따라서 80년대의 고티에 패션은 한마디로 평범함을 거부하고 '섹시, 쇼킹, 전위, 유머, 도전'이라는 이미지를 자신만의 감각으로 표현해내는 흥미로운 패션세계 즉, 어떤 의미에서 화려한 그러나 개개인의 감정이 돋보일 수 있는 개성있는 스타일로 라인이 전개되었다.

고티에의 옷은 언뜻 보면 대담하고 파격적으로 비추어진다. 그러나 아이템 하나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면 의외로 쉽게 입고 다닐 수 있는 트렌디한 옷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액세서리만 띄어내면 누구라도 소화할 수 있어서 전세계의 젊은 층에게 사랑을 받는 비결인 것 같다.

이외에 영화의상에도 폭넓게 참여하여 고티에 특유의 새로움을 선사한다. 또한, 팝가수 마돈나의 블론드 엠비션 투어를 위해 뽀족한 콘 브래지어를 디자인한 패션계의 아이디어맨이기도 하다.

이러한 그의 80년대 작품의 디자인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위(Avanguard)와 클래식(Classic)을 현대적으로 연출 - 특히, 어깨를 강조한 스타일로서 x 실루엣이 돋보인다.
2. 섹시한 여성스러움과 중성적인 분위기의 혼합 즉, 앤드리지너스룩(Androgynous look)과 페미니티(Femininity)의 조화 - 레이어드 스타일 유행, 셔링, 플링스를 많이 잡아서 여성스럽게 연출.
3. 향락주의와 종교, 부르주와의 전통과 길거리 문화 등 서로 모순되는 요소들의 혼합 - 짐시스타일 모드의 유행.
4. 장르, 성별, 문화 등 상식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유머스럽고 도발적으로 표현 - 남자들에게 스커트를 입히고 속옷을 겉옷으로 입기, 턱시도에 코르셋 입기, 바지 위에 속옷 입기 등.

이러한 그의 전통을 벗어난 도발적인 디자인 경향은 터부를 깨는 '유쾌한 반역자'로 그를 20세기 최고의 디자이너 반열에 올려놓았다.